# 중국산 녹용 2천kg 밀수일당 5명 검거

## - 1천9백여kg은 이미 시중에 풀려, 단속 강화해야 -

10억원대의 중국산 녹용과 뱀 등을 밀수입한 일당 5명이 세관에 검거됐다.

광주본부세관은 지난 2월18일 시가 13억원 상당의 중국산 녹용 2천kg과 뱀 2천400kg을 밀수입한 혐의(관세법 위반)로 백모(42.서울 마포구 망원동)씨를 구속하고 판매책 송모(65)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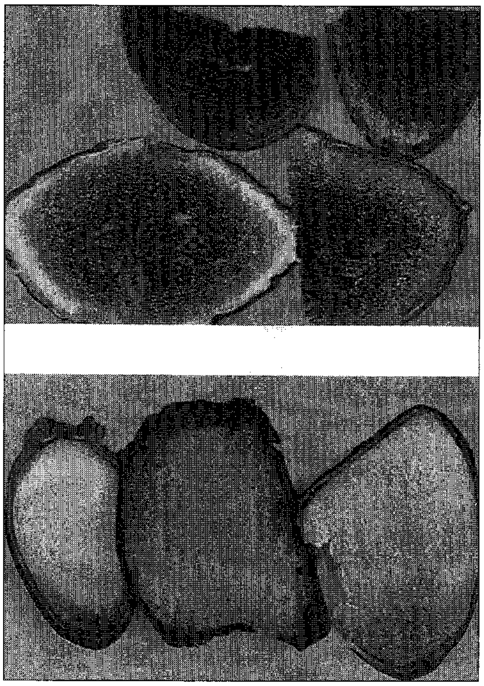
세관에 따르면 백씨 등은 총책과 판매책 등으로 역할을 나눠 지난 1월 등 2차례에 걸쳐 서해를 통해 중국산 녹용과 뱀 등을 밀수, 부산과 서울 등지 건강원과 약재상에 판 혐의다.

세관은 지난해 말 국내 밀수조직이 중국산 녹용과 뱀 등을 밀수한다는 첩보를 입수, 전담반을 구성해 이들의 출입국 동향 등을 추적한 끝에 검거했다.

세관은 충남 천안시에 있는 판매책 송씨의 비닐창고에서 팔다 남은 뱀 1천여kg과 녹용 90여kg 등을 압수했다. 따라서 녹용 1천9백여kg은 이미 시중에 유통된 상태로 국내 양록농가의 피해는 물론 안전성도 검증되지 않은 녹용의 유통으로 국민 건강 또한 위협받는 실정이다.

특히 올해 들어 인천본부세관에서 3건, 광주본부세관에서 1건 등 벌써 중국에서만 4차례의 녹용 밀수가 검거돼 중국으로부터 밀수되는 녹용에 대한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단속 및 감시가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광주본부세관 관계자는 "아직도 뱀 등을 강장제로 선호하는 분위기 때문에 밀수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서남해안 밀수단속 본부의 상시 운영 등 조사체계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국양록



▲ 사진은 러시아(위)와 뉴질랜드(아래)산 수입녹용